

# 지리산권 지식인의 마음 공부<sup>1)</sup>

- 「神明舍圖銘」 관련 남명학과 문학작품에 나타난 재해석의 면모와 시대적 의미 -

全丙哲<sup>2)</sup>

## <국문초록>

南冥 曹植(1501-1572)의 「神明舍圖銘」은 한 인물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다룬 것으로, 그의 엄격한 수양론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남명의 「神明사도명」을 계승한 남명학과 학자들의 문학 작품 5편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리산권 가운데 하나인 진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남명학파의 마음 공부를 이해하는 일단의 실마리로 삼았다.

대상으로는 삼은 작품은 龜巖 李楨의 「神明舍賦」, 東岡 金宇顥의 「天君傳」, 寒沙 姜大遂의 「神明舍記」, 台溪 河潛의 「神明舍記」, 俛宇 郭鍾錫의 「神明舍賦」 등이다. 이 5편의 문학 작품이 가지는 재해석의 면모와 시대적 의미를 고찰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 결론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명의 「神明사도명」을 각기 계승하되 그것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저마다의 입지와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5편의 작품들은 자신의 관점과 시대적 필요에 의거해 「神明사도명」의 핵심을 파악하는 해석의 각도가 차이를 빚게 되었다. 따라서 부각시키려 한 중심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남명학파의 계보상에서 저자들을 구분해 볼 때, 그들의 작품이 가지는 의의를 남명학파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시켜 가늠해 보게 된다. 구암과 동강의 작품은 ‘남명학의 계승과 전파’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한사와 태계의 작품은 인조 반정 직후 남명학파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봉착하여 ‘학맥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면우의 작품은 외세의 침략과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기에 유학적 마음 수양의 指南으로서 ‘남명의 심학을 천양’한 것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1)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M0015)

2)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겸 남명학연구소 책임연구원. wooze@hanmail.net

주제어 : 南冥 曹植, 「神明舍圖銘」, 龜巖 李楨, 「神明舍賦」, 東岡 金宇顥, 「天君傳」, 寒沙 姜大遂, 「神明舍記」, 台溪 河潛, 俛宇 郭鍾錫.

#### 〈차 례〉

- |                             |                   |
|-----------------------------|-------------------|
| I. 머리말                      | 3. 寒沙 姜大遂의 「神明舍記」 |
| II. 「神明舍圖銘」 관련 작품의 분석과 그 의미 | 4. 台溪 河潛의 「神明舍記」  |
| 1. 龜巖 李楨의 「神明舍賦」            | 5. 俛宇 郭鍾錫의 「神明舍賦」 |
| 2. 東岡 金宇顥의 「天君傳」            | III. 맺음말          |

## I. 머리말

본고는 지리산 권역의 남명학파가 가지는 학파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는다. 다른 지역의 학파와 구별되는 남명학파의 변별적 특질은 무엇인가? 그러한 요소들이 형성된 근원은 어디에 있으며, 지리산 동쪽 아래 진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남명학파의 지리적 요건은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이와 같은 목적과 문제 의식을 전제한 가운데, 남명학파의 마음 공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남명학파의 특징은 ‘敬義之學’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남명은 「佩劍銘」에서 ‘內明者敬 外斷者義’라고 하여 ‘敬義’를 철저하게 수양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해석하였다. 수양론의 측면에서 敬과 義를 이해한다면, 둘 중에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敬이 전제되지 않은 義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올바른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는 엄격한 내면 수양이 확립되어야 한다.

남명학파의 마음 공부를 일목요연하게 살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南冥 曹植(1501-1572)의 「神明舍圖銘」과 이것을 계승한 후대 학자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남명의 「神明사도명」은 한 인물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겨내는 과정을 다룬 것<sup>3)</sup>으로, 그의 엄격한 수양론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남명의 「神明사도명」을 계승한 남명학

3) 이상필(2007a), 281면.

과 학자들의 문학 작품 5편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sup>4)</sup> 지리산권 지식인의 마음 공부를 이해하는 일단의 실마리로 삼고자 한다.<sup>5)</sup>

## II. 「神明舍圖銘」의 문학적 계승 양상

### 1. 龜巖 李楨의 「神明舍賦」

龜巖 李楨(1512-1571)은 1544년 그의 나이 33세 이후 퇴계를 사사하여 그 학문을 표적으로 삼아 자신의 학문을 이루려 하였음은 물론, 인근 고을에 거처하던 남명파도 끊임없이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그 고상한 정신 경계를 추앙하여 자기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구암의 「神明舍賦」는 남명의 「神明사도명」과 명칭만 유사한 것이 아니라, 남명 사상의 핵심이라 할 敬義 사상을 자기화하려는 노력의 일환<sup>6)</sup>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구암이 지은 「神明사부」의 전문을 분석함으로써, 그가 남명의 「神明사도명」을 계승한 측면은 무엇이며, 스스로 발전적으로 나아간 부분은 어떠한 것인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구암의 「神明사부」는 크게 8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단락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천지 사이 세운 작은 움막, 중간 지역이 좁아 안타깝도다. 혼돈과 벗어나 서로 이끄니, 沖漠한 곳에 조용히 정신이 노닌다. 마음 속 허령한 곳을 돌아보니, 神明舍가 내려다 보이네. 아득히 확 트여 끝이 없고, 드넓게 중정하여 비길 것이 없네. 머물러 쉴 곳이 있어 기쁘지만, 가는 길 아는 사람 적어 안타깝네.<sup>7)</sup>

4)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명의 「神明사도명」을 계승한 남명학과 학자의 문학작품으로는 본고에서 다룰 5편이 파악되었다. 차후에 보다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조사한다면 이 외의 문학 작품들도 발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조사하여 파악된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 둔다.

5) 남명의 「神明舍圖銘」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논하지는 않으며,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만 경우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남명의 「神明舍圖銘」만을 주제로 다룬 대표적 연구성과물을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全炳允(1991), 崔錫起(1994), 姜信杓(2002), 金忠烈(2002), 조일규(2004).

6) 이상필(2007a), 281면.

7) 李楨, 『龜巖集』續集 卷1, 「神明舍賦」, “立天地之小幕 愍中區之隘陬 友混沌以相携 澹遊神於沖漠 顧方寸之中虛 瞰神明之有舍 洞廣豁而無外 廓中正而不亞 喜止宿之有地 恨識路之蓋寡”

첫째 단락은 문제를 제기하여 神明속에 주목하도록 환기시키고 있다. 사람의 몸이란 천지 사이에 세워진 작은 움막과 같아 규모가 매우 왜소하다. 그런데 그 속에 자리하고 있는 신명사는 아득히 확 트여 끝이 없고 드넓게 중정하여 비길 것이 없다. 小幕의 자그마한 몸속에 광대한 신명사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담고 있는 것과 담겨 있는 것의 포함 관계가 서로 뒤바뀌었다. 외형의 몸과 내면의 마음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역설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처럼 중요한 신명사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촉구하였다.

無極을 끌어당겨 근원을 생각하고, 거슬러 올라가 태초의 시작을 살피네. 사람이 처음 생겨날 때로부터, 一理에서 끝없이 변화하고 변화했네. 陰陽의 오묘한 기틀을 움직여, 五行의 극치를 응결시켰네. 계획하고 경영하여 흠어 베풀니, 배 안에 신명사를 마련했네.<sup>8)</sup>

둘째 단락은 신명사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周敦頤는 「太極圖說」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성리학적 이론으로 설명하였는데, 구암은 여기에 근거하여 신명사의 기원을 이해하였다. 無極이면서 太極인 一理의 근원으로부터 파생되어 陰陽・五行의 작용을 통해 사람이 생겨나며, 신명사는 그렇게 형성된 사람의 몸 안에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고 하였다.

德을 의지하고 禮에 근거하며, 다시 信義로써 다져 기틀을 공고히 하였네. 많은 흙을 서까래로 삼아 단단히 연결하고, 三綱을 기둥으로 세워 튼튼히 지탱하게 했네. 크고 중후한 仁山을 마주 바라보고, 맑은 물결의 智水를 마시네. 활짝 만개한 肝木 그늘을 드리우고, 곱고 청정한 脾土 가득히 메워있네. 참으로 형세가 평이하니, 어찌 꺾이하고 험악하리요?<sup>9)</sup>

셋째 단락은 신명사의 구조를 설명하였다. 德과 禮를 기반으로 삼으며, 그 위에 다시 信義로써 다져 기틀을 공고히 하였다. 여러 흙들을 서까래로 삼아 단단히 연결하고, 三綱을 기둥으로 세웠다. 집 앞으로는 仁山이 마주 보이고, 智水의 물가에 임해 그 물을 마신다. 肝木은 꽃그늘을 아름답게 드리우고 있으며, 곱고 청정한 脾土가 가득히 메워져 있다. 이렇

8) 上同. “援無極而玄想 究權輿之經始 自寅開之初載 沕化化於一理 運二氣之妙機 凝五行之極致 茲經綸而散施 奠茲舍於腔子”

9) 上同. “既依德而據禮 又築信而鞏基 椽衆善而固結 棟三綱而善持 對仁山之博厚 蘸智水之清波 蔭肝木之敷榮 鎮脾土之靜嘉 信體勢之平易 豈怪惡而險阨”

게 세워진 신명사는 야단스럽거나 별난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이한 형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주인이 없으면 혼란하니, 天君에게 명하여 거주하게 했네. 한 집의 주재자가 되어, 찬란한 이름 밝게 걸려 있네. 온갖 이치를 모두 갖추고서, 크고 작은 무수한 일에 응한다네. 일상의 정밀하거나 거친 이치이거나 간에, 무엇인들 허령한 마음에 근본하지 않겠는가? 자식으로 효도하고 신하로서 충성하며, 부모로서 자애롭고 임금으로서 명철하네. 모두 이 집으로 말미암아 밝고 밝아, 각기 운용하고 헤아려 어긋나지 않네. 신명이 이루어 낸 일이건만, 오묘하여 헤아리기 어렵네. 햇빛이 비추고 하늘이 갠 것처럼, 신령이 들어오고 잡귀가 나간 듯. 두루 포괄하여 사물의 골간이 되니, 마땅히 군자가 주인 삼을 바이네.<sup>10)</sup>

넷째 단락은 신명사의 본체와 작용을 설명하였다. 신명사의 주인은 天君이다. 천군이 주재하는 신명사는 온갖 이치를 갖추고서 만사에 응한다. 신명사에 대한 이와 같은 묘사는 다름 아닌 주자가 明德을 풀이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주자는 “명덕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얻은 것으로서 虛靈하여 어둡지 않아 衆理를 갖추고서 萬事に 응하는 것이다[明德者 人之所得乎天 而虛靈不昧 以具衆理 而應萬事者也].”라고 설명하였다.

이 부분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구암은 천군이 주재하는 신명사를 일반적인 ‘心’이 아니라 『大學』의 ‘明德’으로 파악하였다. 첫째 단락에서 “마음 속 허령한 곳을 돌아보니, 신명사가 내려다 보이네.”라고 표현한 구절을 심상하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암은 신명사를 명덕으로 해석함으로써 성리학적 체계 속에서 그 개념을 자리매김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암은 신명사의 본체와 작용을 명덕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일상의 온갖 일들과 그 속에 내재한 이치가 모두 허령한 신명사에 근본하며, 子孝·臣忠·父慈·君明 등의 윤리도 이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신명사는 군자가 주인으로 삼아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道心은 은미하여, 向背가 한결같지 않네. 가까운 곳에 두고도 소란스레 멀리서 찾으니, 마침내 잡귀의 집에서 넘어지리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도깨비와 더불어 이웃으로 지내네. 이런 까닭에 군자가 敬을 주로 하며, 넓고 넓은 天真을 양성한다네. 誠意의 관문을 통하여 출입하니, 외침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내네. 利慾의 비

10) 上同. “然無主則乃亂 命天君而是宅 作一舍之主宰 儼渙號之昭揭 總具我之衆理 應萬事之巨細 彼日用之精粗 孰不本於虛靈 子而孝兮臣而忠 父而慈兮君而明 咸明明於茲舍 各運斟而不忒 是神明之所致 固厥妙之巨測 若日曬而天晴 似神入而鬼出 猗包括而體物 宜君子之攸適”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도, 서까래 하나 기울어지지 않네.<sup>11)</sup>

다섯째 단락은 신명사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신명사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도리를 추구하는 道心은 은미하고 욕망을 채우려는 人心은 강렬하여 신명사를 보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向背가 달라진다. 또한 모든 이치를 갖추고서 온갖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신명사가 바로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내면의 신명사를 버리고 외면의 무엇을 찾아 헤맨다. 그리하여 『대학』에서 “마음이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맛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 상태로 추락하여 도깨비와 더불어 이웃으로 지내며 살아간다. 이것은 남명이 「신명사도」에서 표기한 鬼·夢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구암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명사를 보존하지 못하여 이처럼 잘못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한 후, 신명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敬을 주로 하여 넓고 넓은 天眞을 양성하며, 誠意의 관문을 엄하게 단속하여 외부의 사물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내는 것이다. 주자는 致知와 誠意에 대해, “致知와 誠意는 학자에게 있어 두 개의 관문이다. 치지는 夢과 覺의 관문이요, 誠意는 善과 惡의 관문이다. 치지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覺하게 되며 그렇지 못하다면 夢하게 된다. 성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면 善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惡하게 된다.”<sup>12)</sup>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남명이 「신명사도」에서 성곽 밖에 鬼·夢을 표기한 것은 주자의 이 설을 계승한 것이며,<sup>13)</sup> 구암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마음 수양에 있어 誠意가 가지는 중요성을 공감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구암이 신명사를 보존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면서 敬과 誠意만 언급하고, 義에 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 역시 주자의 설과 남명의 「신명사도」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주자는 “敬은 비유하자면 거울과 같으니, 義는 이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있는 것이다.”<sup>14)</sup>라고 하였다. 그리고 “敬에는 죽은 敬이 있고 살아있는 敬이 있다. 만약 ‘主一’의 敬만을 고집하다가 일을 만났을 적에 義로써 재단하여 시비를 분별할 수 없다면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익숙해진 후 敬 속에 義가 있으며 義 가운데 敬이 있어 고요할 적에는 敬과 不敬을 살피고 움직일 때에는 義과 不義를 살피게 된다. 문을 나서서는 大賓을 만난 듯이 하

11) 上同. “然道心之惟微 有向背之不一 紛在邇而求遠 竟顛倒於鬼室 視不見兮聽無聞 與魑魅而爲隣 故君子之主敬 養浩浩之天眞 關誠意而出入 杜外侮之來窺 雖利慾之風雨 曾一棖之不歛”

12) 朱熹, 『大學章句』 「經1章」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節 細註(학문문화사 영인본 49면). “誠意 是人鬼關 過此一關 方會進 格物 是夢覺關”

13) 曹植 엮음/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역주, 『사람의 길 배움의 길 - 學記類編』, 한길사, 183면. “誠意 是人鬼關 過此一關 方會進 格物 是夢覺關”

14) 朱熹, 『朱子語類』 69卷, 「易五」. “朱子曰 敬比如鏡 義便是能照底”

며 백성을 부릴 적에는 大祭를 받들 듯이 한다면, 不敬이 어느 때에 생기겠는가? 앉아 있을 때에는 尸童처럼 하며 서 있을 적에는 재계하는 듯이 한다면, 不敬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는가? 모름지기 敬・義를 함께 유지하여 끝없이 순환한다면 내면과 외형이 서로 통하여 막힘이 없을 것이다.”<sup>15)</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주자는 敬과 義를 體用的 관점에서 이해하여 본체가 함양된다면 작용이 올바르게 되며 작용이 제대로 실행될 때 본체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남명이 「신명사도」에서 敬을 성곽의 중앙에 표기하여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義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과 구암이 이 단락에서 敬과 誠意만을 언급한 까닭은 敬을 통한 내면의 함양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외물과 접하여 처리하는 義의 실현이 자연스레 올바르게 된다고 이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옛 성인들 우러러 생각해보니, 그분들 홀에 거처하고 中庸을 지켰네. 요임금 순임금 전수하신 말씀 아름답고, 탕임금 무왕 세우신 표준 기뻐하네. 하물며 여러 길 높다란 담장 안에, 孔子 행하신 중용이 있음에랴. 아아 杏壇의 풀이 시들여, 후대의 자취 끊어짐을 슬퍼하네. 그러나 이 집이 그대로 있으니, 濂溪와 洛陽에서 다시 빛을 밝혔네.<sup>16)</sup>

여섯째 단락은 성현의 心法 전수와 中庸을 말하였다. 성리학적 도통론에 입각하여 유가의 心法은 堯・舜으로부터 전수되어 湯・武를 거쳐 孔子에 의해 찬란한 꽃을 피웠으며, 이후 오랜 세월 동안 끊어졌다가 송대 濂洛關閩의 제현들에 의해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가 心法의 최고 핵심은 中庸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 구암의 마음수양이 지향하는 목표를 알 수 있다. 그가 마음을 수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한 것은 中庸의 온전한 실천을 통해 유가의 성현들이 전수하고 실천하신 心法을 계승하고 그분들처럼 높은 인격을 성취하는 것이다. 구암이 주자의 해설에 따라 『중용』을 성리학적으로 파악하되, 道體, 즉 형이상학적 본체론 보다는 수양론에 중점을 둔 것<sup>17)</sup>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부지런히 씻고 닦아 때를 벗기며, 지저분한 찌꺼기를 제거하네. 나의 뜻이 이것에 있으

15) 『性理大全』 제46권, 「學四 存養」. “敬有死敬 有活敬 若只守着主一之敬 遇事不齊之以義 辨其是非 則不活 若熟後敬便有義 義便有敬 靜則察其敬與不敬 動則察其義與不義 如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不敬時如何 坐如尸立如齊 不敬時如何 須敬義夾持 循環無端 則內外透徹”

16) 李楨, 『龜巖集』續集 卷1, 「神明舍賦」. “仰往古之羣聖 咸善宅而中規 嘉堯舜之相傳 喜湯武之建極 沉數仞之牆高 有將聖之允執 噫杏壇之草沒 悲後代之絕迹 然茲舍之自若 復潤輝於濂洛”

17) 이세동(2009), 288~289면.

니, 잠시라도 게을리 할 수 있으랴? 은미한 데에서 지키고 살피노니, 천군께 고하여 스스로 경계하네.<sup>18)</sup>

일곱째 단락은 마음 수양의 의지와 결심을 밝혔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지향이 마음을 수양하는 데 있으므로, 잠시라도 게을리 할 수 없고 은미한 곳에서도 지키며 살핀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음 수양의 의지와 결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천군에게 고하여 자신을 신칙하였다.

箴에 이르길, 나에게 한 집이 있으니 性과 情을 통섭한다네. 왼쪽은 天根에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은 道境에 접하고 있네. 내가 어찌 남에게 줄 수 있으며, 남도 어찌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으랴! 敬이여! 義여! 반듯하고 곧게 하라. 神이여! 明이여! 활짝 열고 넓혀라. 공경하여라, 신명사가 있음이여! 비우지도 황폐하게도 말지니, 성곽처럼 굳게 지킬지이다.<sup>19)</sup>

여덟째 단락은 箴의 형식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하였다. 사람의 몸 속에 자리하고 있는 신명사는 性과 情을 통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성리학의 핵심 명제인 ‘心統性情’과 같은 뜻으로, 신명사와 마음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넷째 단락에서는 신명사가 명덕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마음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두 표현이 서로 모순되는 듯하지만, ‘主宰의 主體’라는 측면에서 서로 통한다. 명덕은 온갖 이치를 모두 갖추고서 크고 작은 무수한 일에 응하는 것이며, 心統性情의 心은 性과 情을 주재하고 통솔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군이 주재하여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신명사의 개념은 명덕 및 심통성정과 상호 호환될 수 있다.

天根은 동방의 별이름인데 여기서는 품부받은 천성을 상징하며, 道境은 도통을 수수하는 경지를 의미한다. 신명사에서 천군이 성정을 잘 통섭함으로써 도통을 수수하는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남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sup>20)</sup>

구암은 결말 부분에서 신명사를 보존하기 위해 ‘敬以直內’와 ‘義以方外’의 수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역설하였다. 敬과 義가 있어야 신명사의 ‘神明’함이 활짝 열리고 넓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敬·義를 통한 마음의 수양은 한 때의 노력을 통해 성취할 수 있는

18) 李楨, 『龜巖集』續集 卷1, 「神明舍賦」. “勤藻雪而滌垢 去查滓之溷濁 我所志之在茲 敢怠忽於頃刻 肆存省於隱微 告天君而自飭”

19) 上同. “箴曰 我有一舍 統攝性情 左連天根 右接道境 我豈與人 人豈我奪 敬乎義乎 方之直之 神也明也 闕矣廓矣 敬哉有舍兮 毋曠毋荒 守之如郭”

20) 이상필(2007a), 280면.

것이 아니다. 잠시라도 비우거나 황폐하게 해서는 안 되며, 성곽을 굳게 지키듯이 언제나 깨어서 경계하고 삼가야 한다. 구암이 「신명사부」의 끝부분에서 箴의 형식을 통해 마음 수양의 치열하고 부단한 노력을 환기시켜 강조한 까닭은 그가 이 글을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구암의 「신명사부」는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계승하여 마음의 주재성을 강조하고 경과 의의 수양법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치열하고 부단한 노력을 쏟아 성현이 이룩한 마음 수양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구암은 신명사의 개념을 성리학적 이론 속에서 정립하였으며, 마음 수양의 최고점을 유가 성현의 도통론에서 파악하여 중용을 강조하였다. 남명의 「신명사도명」이 마음 수양의 구체적 방법과 전개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구암의 「신명사부」는 마음 수양의 당위성과 목표를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려 한 것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 2. 東岡 金宇顥의 「天君傳」

東岡 金宇顥(1540-1603)은 남명의 친구 七峰 金希參(1507-1560)의 아들로, 1563년 남명의 外孫壻가 되고 이후 자주 남명을 배알하였다. 그는 1563년에 처음 남명에게 執贄했는데, 이 때 남명으로부터 ‘惺惺子’라는 喚醒用 도구를 받고, 1566년에 「神明舍圖」와 「神明舍銘」을 참고로 「天君傳」을 짓기를 命받았다.<sup>21)</sup> 남명의 학문과 수양에 있어 「신명사도명」과 성성자가 가지는 의미가 각별한 것임을 생각할 때, 남명이 동강에게 건 기대가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는 이 두 가지 일을 통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동강의 「천군전」은 5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단락은 도입부로서 ‘天君’과 ‘有人國’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였다. 천군은 乾元帝의 胤子인데, 하늘을 다스리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下土의 萬國을 다스리게 되었다. 명을 내릴 적에 仁義之室<sup>22)</sup>・禮智之琛과 같은王府의 진귀한 보물을 하사하였으며, ‘敬이 勝하면 길하고 怠가 勝하면 멸망할 것이라’는 말로 경계시켰다. 그리고 太史에게 有人國의 疆域을 구획하고 胤子를 이 곳에 봉하도록 명하였다. 이에 유인국의 백성들이 윤자를 높여 천군이라고 존칭하였다. 천군의 초명은 ‘理’

21) 이상필,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2005, 108-109쪽.

22) 전후 문맥과 뒷부분의 禮智之琛・軒轅氏之珠・隋侯之璧 등과의 조응을 생각해 볼 때, 仁義之室의 ‘室’자는 ‘室’자의 誤字가 아닐까 의심된다.

인데, 유인국에 봉해진 후에 이름을 ‘心’이라고 고쳤다.<sup>23)</sup>

둘째, 셋째, 넷째 단락은 천군이 처음 즉위하여 통치 기반을 이룩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린 일로부터 간신의 꾀임에 빠져 향락을 추구하다가 나라를 잃은 후 잘못을 뉘우치고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그리고 있는 행적부에 해당한다. 둘째 단락은 천군의 즉위 원년에 神明殿에서 조회를 받으며 太宰 敬·百揆 義와 더불어 君臣 간에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는 것을 묘사하였다. 천군이 두 재상의 말을 깊이 받아들였으므로, 그들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이 크게 화합하고 나라 안이 잘 다스려졌으며, 천하 만국이 모두 유인국에 속하였다.

셋째 단락은 천군이 말년에 八駿馬를 타고 마음대로 주유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게 되는 것을 묘사하였다. 먼저 公子 懈와 公孫 傲가 일을 꾸며 태재 경이 쫓겨나고 백규 의가 떠나가게 된다. 다음으로 銀海路의 妖賊인 華督 등이 三關에서 처음으로 난을 일으킨다. 銀海는 도교와 의학에서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말이며, 三關은 눈·귀·입에 해당한다. 마침내 도적이 유인국의 수도인 胸海를 습격하였는데, 천군이 밖에서 주유하고 있어 아무런 방비가 없었으므로 칼날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성곽에 들어갈 수 있었다. 靈臺 아래에서 유인국의 군사들이 크게 패하였고, 장군 剛은 전사하였다. 도적의 우두머리 柳跬이 스스로 임금이 되어 方寸臺에 거처하였으며, 궁궐을 비롯한 온 나라가 도적에 의해 무참히 더럽혀졌다.

넷째 단락은 천군이 나라를 잃은 후 뒤늦게 뉘우치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천군이 나라를 잃자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이나 신하들마저 모두 떠나갔다. 그런데 오직 公子 良이 차마 떠나가지 못하고 祈招의 시를 지어 간언하였다. 이에 천군이 깊이 뉘우쳐 수레의 방향을 돌이키고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하였으며, 태재 경을 다시 재상의 자리에 앉혔다. 그러자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기약한 지 10년 만에 천군이 다시 국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大將軍 克己가 四勿旂를 세우고 선봉에 섰으며, 公子 志는 원수로서 무리를 통솔하였다. 대장군 극기의 孤軍이 적진에 깊이 들어가 생사의 기로에서 적들과 맞붙어 필사의 각오로 싸워 크게 무찔렀다. 드디어 천군이 신명전에 다시 오르게 되었으며, 백규 의가 돌아와 태재 경과 함

23) 理一分殊의 관점에서 乾元帝를 ‘本原之理’로 이해하고, 天君을 ‘分殊之理’로 해석하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천군의 초명이 ‘理’였다가 유인국에 봉해진 후 ‘心’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성리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논쟁점이 될 수 있다. 理와 心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 것은 한주학파의 ‘心卽理說’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동강의 理氣心性論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남명학과 성리설의 특징과 의의를 규명하는 데에까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게 안팎을 나누어 다스렸다. 이후로도 적들이 여러 차례 변방을 침입하였지만 굳건히 방비하여 물리쳤다.

마지막인 다섯째 단락은 太史公이 전체를 총괄하여 평하는 것으로 논평부에 해당한다. 태사공은 천군이 유인국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까닭은 오로지 태재 경으로 인한 것이며, 태재 경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라를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고 논평하였다.

동강의 「천군전」은 이와 같이 5단락의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넷째 단락이 가장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넷째 단락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天君이 나라를 잃게 되자 대대로 벼슬한 가문이나 신하 중에서도 따르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公子 良이 그 와중에 일을 주선하였는데, 비록 쓰이지는 못했지만 차마 버리고 떠나지 못했다. 그리하여 祈招의 시를 지어 천군을 경계시켰다. 천군이 비통하게 돌이켜 뉘우침이 있어 즉시 수레를 정비하여 방향을 돌이키도록 명하였다. 흩어진 병졸들을 불러 모으고 太宰 敬이 행재소에 나아오자 본래의 지위로 회복시키니, 이에 백성들이 구름처럼 물려들었다.<sup>24)</sup>

華督 등이 눈·귀·입의 三關에서 먼저 난리를 일으키자 여기저기에서 도적들이 봉기하였다. 수도인 胸海가 함락되었으며, 천군의 군대가 靈臺 아래에서 패전하고 將軍 剛이 전사하였다. 柳跖이 스스로 임금이 되어 方村臺에 들어가 거하였으며, 궁전을 비롯한 온 나라가 추악한 자들에 의해 더럽혀졌다.

더욱이 公子 懈와 公孫 傲 등의 농간으로 태재 경이 쫓겨나고 백규 의가 떠난 상황에서, 임금과 나라를 위해 나서서 힘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때 오직 公子 良이 일을 주선하여 수고를 하였으며, 祈招의 시를 지어 천군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였다. 그 다음으로 태재 경을 다시 재상의 자리에 회복시켰다.

동강은 마음을 亡失한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良心의 깨우침이 있다고 보았다.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마음 속 깊이 남아 있었던 良心의 목소리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것이다. 양심을 통해 그러한 반성과 돌이킴이 있는 연후에 持敬에 의한 내면의 안정을 되찾는 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라를 회복할 것을 기약한 지 10년 만에 천군은 다시 국경[穀子] 안에 들어갔다. 大將

24) 金宇顒, 『東岡集』 卷4, 「天君傳」. “天君既失國 故家遺臣無一從者 惟公子良 尙周旋其間 雖不見庸 不忍棄去 乃作祈招之詩 以警其君 君惻然省悟 卽命整駕回轡 收召散卒 太宰敬詣行在 使復其位 於是百姓雲集”

軍 克己가 四勿旂를 세우고 선봉이 되었으며, 公子 志는 무리를 통솔하여 원수가 되었다. 대장군의 孤軍이 적진으로 깊이 들어가 생사의 기로에서 적과 맞붙었는데, 밥해 먹던 술도 깨부수고 주둔하던 막사도 불사르도록 명하여 사졸들에게 必死의 각오를 보였다. 백 번이나 혈전을 벌인 끝에 적들이 크게 궤멸되었고, 천군은 神明殿에서 왕위를 바르게 할 수 있었다. 百揆 義도 돌아와 태재 경과 함께 안팎을 나누어 다스렸다.<sup>25)</sup>

천군이 반성하고 뉘우쳤다고 해서 금방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서야 국경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公子 志는 원수로서 무리를 통솔하여 안정된 질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大將軍 克己는 孤軍奮鬪하여 생사의 기로에서 목숨을 건 전투를 벌였다. 밥해 먹던 술도 깨부수고 주둔하던 막사도 불사르도록 명하여 죽지 않고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사생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전투에 임하였다. 그리하여 백 번의 전투를 벌인 끝에 적들이 크게 궤멸되었으며, 천군은 왕위에 다시 오를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을 되찾자 百揆 義도 다시 돌아와 태재 경과 함께 内外를 나누어 다스렸다.

동강은 이 대목에서 마음의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렬한 각오와 치열한 노력을 얼마나 쏟아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그런 싸움이며 수양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남명이 견지한 ‘廝殺의 存養省察’의 수양법을 서사를 통해 역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浴川」이란 시에서 “만약 五臟 안에 티끌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 배를 갈라 흐르는 물에 부쳐 보내리라.”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남명은 私欲 또는 惡念이 일어났을 경우 이를 물리치지 못하면 곧 죽음 뿐이라는 철두철미한 ‘廝殺’의 정신 자세를 견지하였다.<sup>26)</sup>

태재 경이 임금에게 권하여 성벽을 견고히 하고 들판을 깨끗이 하며 要害處를 진압하게 하였다. 적의 무리가 여러 번 변방을 침입하였지만, 대장군이 기세를 엄하게 하여 성곽을 순시하자 적들이 모두 달아나 감히 그 칼끝을 당해낼 수 없었다. 대장군이 추격하여 모조리 베어버리고 병사를 진격시켜 그들의 소굴을 뒤엎었다. 乾元帝가 내려주신 영역을 전부 회복하고 군대가 돌아와 丹墀에서 勝捷을 고하였다.<sup>27)</sup>

25) 金字顯, 『東岡集』 卷4, 「天君傳」. “克期恢復十年 天君復入穀子裏 大將軍克己 建四勿旂爲前鋒 公子志 統大衆爲元帥 大將軍孤軍深入 遇賊于生死路頭 命破釜餽 燒廬舍 視士卒必死 血戰百合 賊衆大潰 君正位于神明殿 百揆義亦來 太宰分治内外”

26) 이상필(2005), 62면.

27) 金字顯, 『東岡集』 卷4, 「天君傳」. “克期恢復十年 天君復入穀子裏 大將軍克己 建四勿旂爲前鋒 公子志 統大衆爲元帥 大將軍孤軍深入 遇賊于生死路頭 命破釜餽 燒廬舍 視士卒必死 血戰百合 賊衆大潰 君正位于神明殿 百揆義亦來 太宰分治内外 太宰勸上 堅壁清野 控制要害 賊黨數犯邊 大將軍厲氣巡城 賊皆却走 莫敢當

천군이 왕위로 오르고 태재 경과 백규 의가 재상의 지위로 돌아왔다고 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성벽을 견고히 하고 들판을 깨끗이 정리하며 요해처를 진압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수시로 침범하는 적의 무리를 추상같은 기세로 몰아붙여 모조리 베어 버리고 근거지를 소탕해야 한다. 그리하여 乾元帝가 내려주신 본래의 영역을 온전히 회복한 후에야 丹墀에서 승첩을 고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三宮이 안정되고 사방의 들판은 고요하며 천리만 국토가 깨끗하여 흠이 없었다. 천군이 두 손을 모으고 옷을 드리운 채 있어도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 태재 경은 천군의 덕을 보좌하여 萬化의 근본을 맑게 하였으며, 백규 의는 일의 변화에 응하여 一本의 작용을 베풀었다. 각자 자신의 직분을 공손히 행하여 나라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 임금이 재위한 지 백년 만에 六龍을 타고 건원제의 조정에 조회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sup>28)</sup>

마지막 부분에서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유인국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三宮은 안정되고 사방의 들판은 고요하며 온 국토가 깨끗해져 흠이 없었다. 그리고 堯舜의 태평시절과 같이 임금이 나서서 통치하지 않아도 나라가 저절로 다스려졌다. 태재와 백규 두 재상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다른 신하들도 자신의 직분을 공손히 행하였다.

여기에서 태재 경과 백규 의가 맡은 역할에 관한 설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동강이 敬과 義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강은 태재 경에 대해 ‘천군의 덕을 보좌하여 萬化의 근본을 맑게 한다’고 하였는데, 마음의 본래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는 의미로서 存養省察에 해당한다. 백규 의에 대해서는 ‘일의 변화에 응하여 一本의 작용을 베풀다’고 말하였는데, 외부의 사물에 접하여 마음의 본래성을 발휘하여 베풀다는 뜻으로서 處事接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萬化의 근본이 맑아야 一本의 작용이 올바르게 베풀어질 수 있으므로, 敬을 통한 廐殺의 存養省察이 이루어진 후에야 義에 의한 方斷的 處事接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찰할 때, ‘태재를 쫓아내자 백규가 지위를 불안하여 여거 떠나갔다’, ‘백규 의도 돌아와 태재와 함께 내외를 나누어 다스렸다’ 등의 표현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천군이 임금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태재 경의 보좌에 힘입은 것이다’라고 말하여 백규 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남명의 「신명사도명」에서 冢宰로서

其鋒 將軍追擊盡斬之 進兵覆其巢穴 盡復乾元帝所賜之地界 師還告捷于丹墀”

28) 金字顯, 『東岡集』 卷4, 「天君傳」. “自是三宮清晏 四野寧謐 金甌千里 瑩淨無痕 天君拱己垂衣而治 太宰輔君德以清萬化之本 百揆應事變以宣一本之用 各恭其職 國家無事 上在位一百年 乘六龍朝帝庭不還”

의 敬을 義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의문이 풀릴 수 있다. 경과 의를 체용론의 관점에서 이해하였기 때문에, 본체인 경에 대한 강조는 작용으로서의 의가 항상 그 이면에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강의 「천군전」은 「신명사도」·「신명사명」에 함축되어 있는 남명의 心學과 修心法을 傳이라는 형식을 통해 서사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그림으로 그려진 「신명사도」의 平面的 停止를 서사의 방법을 통해 力動的 展開로 서술하였으며, 銘으로 표현된 「신명사명」의 함축성을 傳의 형식을 통해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심성의 원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논술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圖와 銘을 통해 난해한 심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한 것이 「신명사도」와 「신명사명」이라면,<sup>29)</sup> 「천군전」은 圖와 銘이 가지는 제한성을 다른 측면에서 보완하여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천군전」은 남명이 견지한 敬과 義의 상호연관성을 자세하게 설명한 반면, 특히 敬의 ‘廐殺의 存養省察’에 더욱 밀착하여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음 수양의 단호하고 준엄한 면모를 역동적으로 드러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3. 寒沙 姜大遂의 「神明舍記」

1614년 2월에 桐溪 鄭蘊(1569-1641)은 永昌大君을 살해한 江華府使 鄭沆을 목베고 영창대군의 位號를 追復해야 한다는 내용의 「甲寅封事」를 올렸다. 來庵 鄭仁弘(1536-1623)의 문인들 가운데 급제한 인물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여, 동계의 일로 인해 두 부류로 나뉘었다. 동계의 주장에 찬동했던 이는 中北으로 분류되며, 이들은 광해군 정권 동안에 유배를 가기도 하고 유배지에서 죽기도 하였는데, 인조반정 이후에도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벼슬길에 나서기도 하였다. 동계의 주장을 외면하였던 인물은 大北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광해조 후반기에 淸要職을 두루 맡았었고 인조반정 이후에는 伏誅 또는 竄逐당하거나 廢錮당하였다.<sup>30)</sup> 寒沙 姜大遂(1591-1658)는 中北에 속한 인물로, 1615년(광해군 7년) 2월에 동계를 斗護한다고 탄핵을 받아 削奪官職되고 강원도 淮陽으로 유배되었다가 1623년 仁祖反正이 일어나 다시 벼슬길로 나아갔다.

「신명사기」는 회양으로 귀양 갔을 때인 1620년에 지은 것으로, 크게 3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신명사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였다. 冲漠의 고을 丹田 위에 집 한

29) 정현섭(2004), 45면.

30) 이상필(2005), 147~148면.

채가 있는데, 神妙不測하고 虛靈不昧하여 ‘神明’ 또는 ‘靈垓’로 일컬어진다고 하였다. 둥근 하늘과 네모진 땅을 본받아 지어졌고 仁山이 鎮定하고 智水가 둘러쳐 있으며 환하게 툇 트인 언덕 위에 자리하고 넓고 큰 연못가에 임해 있어 높고도 아름답다고 묘사하였다.

둘째 단락은 손님과 신명사의 주인이 문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인의 말을 빌려 신명사의 構造와 功能을 설명하였다. 신명사는 인공의 재료나 노력을 통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博厚를 터전으로 삼았기에 上下·四方이 창문과 뜰 밖으로 벗어나지 않으며, 高明의 동량을 세웠으므로 고금의 왕래가 문 안에 包容된다. 喜·怒·哀·樂·愛·惡·欲 등이 여기에서 나오고, 親親貴貴·是是非非·善善惡惡 등이 이 곳에 포괄되어 있다. 內外도 없고 方位도 없으며, 虛靈하고 洞徹하며, 열리고 닫히며 늘어나고 줄어든다. 그러므로 천년의 日至도 앉아서 알 수 있고, 수많은 사물의 온갖 변화를 앉아서 다스릴 수 있으며, 귀신과 더불어 신령스러움을 같이 하고 일월과 함께 나란히 밝다고 설명한 후, ‘神明舍’라는 이름이 붙여진 까닭이 바로 이러한 점에 있다고 밝혔다.

太極이 처음 갈라져 나와 天·地·人의 三才가 나란히 생길 때로부터 사람에게 신명사가 있었는데, 天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하거나 크지 않으며 匹夫라고 해서 작거나 소박하지 않다. 신명사가 土階 위 하늘에 지어져 있으므로 높고 우뚝하며, 瑤臺의 해를 잃게 되면 깊은 밤이 된다고 묘사하였다. 그리고 ‘神明’을 보존하는 것은 주인의 닦음[修]과 지킴[守]에 달려 있는데, 陋巷에 살았던 顏回는 이 집에 편안히 거처하였고 周公보다 더 부유했던 魯나라의 季氏는 잡귀가 이 집을 엿보았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단락은 한사가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한 부분으로, 이 작품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손님이 묻기를 “그렇다면 닦고 지키는 방도가 있습니까?”라고 하자, 주인이 대답하길 “入德의 대문을 숭상하고 人鬼의 관문을 잠그며 三字符를 패용하고 四勿旗를 휘두릅니다. 이것이 곧 엄하게 지키는 방도입니다. 찌꺼기를 녹이고 더러움을 씻어내어 活水를 두르고 霽月을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하게 닦는 방도입니다. 그런 뒤에야 여기에서 動靜하고 만사에 응하여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간에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집이 부서지고 도적이 들이닥치며 방이 어두침침하고 먼지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악한 무리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관리가 직분을 잃게 되며 살아있는 용과 호랑이가 집과 뜰에서 설치될 것입니다. 불길이 타오르고 얼음이 차갑게 응고되는 일이 현함과 기둥 사이에서 번갈아 교차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집의 ‘神明’함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깊은 곳에 홀로 있더라도 삼가고 조심하며 방 안에 들어가서

도 陣法을 시행하는 듯이 합니다. 감히 집의 편안함으로써 안락함을 삼아 방자하지 않으며, 감히 집의 광대함으로써 넓음을 삼아 게을러지지 않고자 합니다. 이 집을 가진 자가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손님이 말하길 “좋습니다. 집의 이름을 물어 집을 지키는 방도까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고서 큰 띠에 적어 기록하였다.<sup>31)</sup>

손님이 주인에게 신명사를 닦고 지키는 방도에 관해 묻자, 먼저 지키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入德의 대문을 숭상하여 그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둘째, 人鬼의 관문을 굳게 잠궤야 한다. 人鬼關은 구암의 「신명사부」에서 설명했듯이, 誠意를 말한다. 뜻을 성실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선한 사람이 되거나 악한 잡귀처럼 된다고 말하여 誠意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三字符를 패용해야 한다. 남명의 「신명사명」에서 ‘四字符’를 제시하였는데, 곧 和・恒・直・方이다. 禮의 쓰임은 和가 귀하니, 和는 절도에 맞는 것이며, 言行을 항상 신의 있게 하고 삼가는 것이 恒이니, 恒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조심함[謹獨]이 直이며, 자로 잰 듯이 행동함[絜矩]이 方이다.<sup>32)</sup> 그런데 寒沙는 三字符를 제시하였을 뿐, 이것에 관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남명의 문인 覺齋 河沆(1538-1590)은 ‘百勿旗・三字符’ 여섯 글자를 크게 써서 벽에 붙이고 각 절목을 두어 항상 보면서 自省하는 방책으로 삼았다<sup>33)</sup>고 한다. 각재가 자성의 방책으로 삼았다는 ‘三字符’가 남명이 지은 「신명사명」의 ‘四字符’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이 없으나, ‘四字’가 ‘三字’로 바뀐 연유는 불분명하다. 다만 浮查 成汝信(1546-1632)의 「三字解」를 통해 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부사는 ‘三字’를 ‘直・方・大’라 밝히고 直의 공부는 敬이며 方의 공부는 義이며 大의 공부는 誠이라고 하였다.<sup>34)</sup> ‘直・方・大’는 『周易』 「坤卦」 文言傳 九二에서 유래한 것이다.<sup>35)</sup> ‘直’과 ‘方’은 남명의 「신명사명」에서 풀이한 것과 크

31) 姜大遂, 『寒沙集』 卷5, 「神明舍記」. “曰 然則修而守之有道乎 曰 有崇入德之門 而鑄人鬼之關 佩三字之符 而麾四勿之旗 此其守之之嚴也 消融其查滓 蕩滌其邪穢 活水以繞之 霽月以照之 此其修之之潔也 夫然後 動靜於斯 應萬事於斯 無入而不自得焉 如其否者 破屋而寇至 暗室而塵生 邪抵乎隙 官失其職 生龍活虎 攫拏於庭宇 焦火凝冰 變幻於軒楹 舍無所用其神明矣 予爲是懼 屋漏乎淵冰 入室乎行陣 不敢以安宅爲安而自肆也 不敢以廣居爲廣而自佚也 有是舍者 奈何不敬 客曰 善 問舍之名 得守舍之道 遂書紳以記之”

32) 曹植 지음/남명학연구소 옮김, 국역 『南冥集』, 한길사, 2001, 166면.

33) 河沆, 『覺齋集』 卷下, 「行狀」(金壇 所撰). “大書百勿旗三字符六字 揭于壁 各有節目 以爲常目自省之方.”

34) 부사 성여신은 台溪 河潛의 스승으로, 그의 「삼자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장에서 河潛의 「神明舍記」와 관련하여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35) 『周易』 「坤卦」 文言傳. “直 其正也 方 其義也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 而德不孤 直方大 不習無不利 則不疑其所行也”

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大’는 ‘和·恒’을 통합한 듯하다.<sup>36)</sup>

四勿旗는 顔子が 孔子에게 仁에 이르는 방법을 묻자,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非禮勿視],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非禮勿聽],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非禮勿言], 예가 아니면 행하지 말라[非禮勿動]”고 한 말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수록된 『論語』 「顔淵」 ‘克己復禮’章 細註에, “說文에 ‘勿’자는 깃발과 같다고 했는데, 이 깃발을 한번 휘두르면 三軍이 다 물러간다”<sup>37)</sup>고 말한 주자의 해석을 통해 ‘旗’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명사를 깨끗하게 닦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찌꺼기를 녹이고 더러움을 씻어내며 집 주위에 活水를 둘러치고 霽月이 비추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程子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살아 있어야 하니, 살아 있으면 두루 유행하여 다함이 없어 한 귀퉁이에 막히지 않는다.”<sup>38)</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活水는 끊임없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항상 마음이 깨어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霽月은 티끌 하나 없이 맑은 상태로서 마음 어느 한 곳에도 사욕이 일어나지 않아 혼매함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sup>39)</sup>

한사는 신명사를 엄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닦는다면, 이 곳에서 동정이 일어나고 만사에 응하여 그 어떤 것이 들어오더라도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와 반대가 될 경우, 집이 부서지고 도적이 쳐들어오며 방 안이 어둡고 먼지가 일어나며, 사악한 무리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관리가 직책을 잃게 되며, 용과 호랑이가 집과 뜰에서 설치대며 날뛰며, 불길과 얼음이 헌함과 기둥에 번갈아 교차할 것이므로, 신명사의 신명함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리하여 항상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함을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였다.

한사의 「신명사기」는 ‘記’라는 형식을 통해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계승하였는데, 신명사의 명칭·유래·구조·주변 경관·공능·닦고 지키는 방법 등을 비유적 수사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논리적 구성이 치밀하여 마음 수양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법론을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신명사도명」과의 차이점은 ‘太一眞君’에 관한 언급이 없는 대신에 ‘神明舍’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며, ‘四字符’가 변용되어 ‘三字符’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신명사의 의미를 해명하고 마음 수양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므로, 「신명사도명」과 「천군전」에 보이는 마음 수양의 치열함과 긴장감이 줄어든 느낌이 든다. 어떤 구체적 대상과 관련해 사실을 기술하고 의미를 밝히는 ‘記’의 문학적 형식을

36) 하만홍(2002), 26~27면.

37) 『論語』 「顔淵」 ‘克己復禮’章 細註(학민문화사 영인본 地冊 409쪽). “朱子曰 說文謂勿字似旗脚 此旗一麾 三軍盡退”

38) 朱熹·呂祖謙 편, 『近思錄』 卷4, 「存養」. “人心常要活 則周流無窮 而不滯於一隅”

39) 강성두(2002), 24면.

고려해 본다면, 한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에 중심을 두어 서술하려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4. 台溪 河潛의 「神明舍記」

진주에서 태어난 台溪 河潛(1597-1658)은 가계연원과 당시 경상우도의 학문조류 등에 기인하여 자연스레 남명을 사숙하게 되었으며, 진주 지역에서는 드물게 仁祖 때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仕宦 기간 중에는 거의 대부분 淸要職을 역임하였으며, 退仕 후에는 남명 학파의 명맥을 존속시키기 위해 많은 힘을 기울였다.<sup>40)</sup>

태계는 37세 되는 해인 1633년 4월에 문과 급제를 하였는데, 같은 해 겨울에 「神明舍記」를 지었다. 그가 문과에 급제하여 처음 벼슬길로 나아갔을 때 남명 사상의 핵심이 담겨 있는 「신명사도명」을 계승하여 「신명사기」를 저술한 사실은 시사하는 의미가 深長하다고 할 수 있다.

「신명사기」는 크게 5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단락은 神明舍의 유래를 설명하였다. 膺縣은 仁義鄉으로, 예로부터 성현이 많이 배출된 곳이다. 太初 元年에 無極翁이 仁山の 서쪽 및 智水의 동쪽에 집터를 잡아 信土를 다지고 仁木을 모으며 義金을 주조하여 몇 길의 담장을 둘러 집을 완성하였는데, 이 집이 바로 신명사라고 하였다. 이 단락은 마음의 유래를 비유의 수사법을 통해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둘째 단락은 신명사의 주변 환경을 묘사하고, 수행하는 공부 방법을 제시하였다. 活水의 근원이 頭顱山[머리]으로부터 솟아나서 두 협곡 사이로 쏟아져 남쪽으로 흐르다가 물이 모여들어 半畝 정도의 네모난 연못을 이루었는데, 맑고 깨끗하며 물결이 요동치지 않아 보는 사람의 정신이 상쾌해져 살아서 약동하는 뜻이 있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명사가 위치한 지세가 매우 높아 위로는 天根과 月窟에 접해 있고, 아래로 丹田과 胸海에 임해 있으며, 눈 아래에 한 점의 티끌도 없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이 외에도 아침과 저녁의 기이한 풍경, 하늘 위로 나는 소리개와 연못에서 뛰는 물고기, 사물과 접하지 않은 새벽녘의 고요함과 환히 빛나는 별빛 등을 다채롭게 표현하였다.

마지막 부분은 신명사에서 정진해야 할 공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楣間에 ‘三字符’를 붙이고, 벽에 ‘惺惺’ 두 글자를 크게 쓰며, ‘愼獨’·‘省察’·‘操存’·‘寡慾’ 등의

40) 류진희(2004), 2면.

말을 베껴 그림으로 그려 네 모퉁이에 걸어 놓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공부의 바탕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三字符’는 寒沙의 「神明舍記」에서 설명하였듯이, ‘直·方·大’를 뜻한다. 태계가神明사의 미간에 삼자부를 붙여 공부의 핵심으로 삼으려 한 까닭은 그의 스승이자 남명의 문인인 浮查 成汝信(1546-1632)의 「三字解」를 통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翁이 마주앉은 북창 위 벽면에 세 글자를 크게 써서 붙이니, ‘直·方·大’이다. 무엇을 直이라고 하는가? 마음이 올곧은 것이다. 무엇을 方이라고 하는가? 일이 방정한 것이다. 무엇을 大라고 하는가? 도량이 큰 것이다.

이에 해석하기를 “마음이 올곧지 않으면 사악해지며 일이 방정하지 않으면 그릇되게 되며 도량이 크지 않으면 편협하게 된다. 사악함·그릇됨·편협함 등은 군자가 하지 않는 것이다. 直의 공부는 敬에 있으며, 方의 공부는 義에 있으며, 大의 공부는 誠에 있다. 하나에 집중하여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한다면[主一無適] 敬이 마음의 주인이 될 것이며, 헤아리고 판단하여 마땅하게 처리한다면[裁度適宜] 義가 일의 주인이 될 것이며,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면[眞實無妄] 大가 몸의 주인이 될 것이다. 마음에 주인이 있고 일에 주인이 있으며 몸에 주인이 있다면, 좁고 굵은 길에서 걷기 어려운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벽에 써놓고 보면서 스스로 경계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sup>41)</sup>

부사는 直·方·大를 공부의 지향점으로 정하고 敬·義·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삼았다. 이것은 남명 사상의 핵심인 敬義에 大로 구체화되는 誠을 추가하여 자신의 사상으로 체계화시킨 것<sup>42)</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三字符’를 통해 부사에게 전수된 남명의 핵심 사상을 태계가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명이 「神明사도명」에서 敬 아래에 ‘惺惺’ 두 글자를 적어놓았는데, 부사가 「惺惺齋箴」을 지어 그 의미를 부연하고 중요성을 밝힌 것과 태계가 ‘神明사의 벽에 惺惺 두 글자를 크게 쓴다’라고 말한 것 등도 남명학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때 그 의의가 분명해진다.

다시 「神明사기」로 돌아와 셋째 단락을 살펴본다면, 이 단락은 태계가 物慾과 貪利에 빠져 방황하다가 뒤늦게神明사에 관심을 가져 돌이킨 것에 대한 탄식과 기쁨을 말하였다. 그는神明사로 돌아온 것을 마치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황홀하다고 표현하였다.

41) 成汝信, 『浮查集』 卷5, 「三字解」. “翁於對坐北窓上壁面 書三大字以粘焉 曰直也方也大也 何謂直 曰心要直 何謂方 曰事要方 何謂大 曰量要大 乃解之曰 心不直則邪 事不方則曲 量不大則隘 邪也曲也隘也 君子不爲直之功在敬 方之功在義 大之功在誠 主一無適 則敬爲心之主矣 裁度適宜 則義爲事之主矣 眞實無妄 則大爲身之主矣 心有主 事有主 身有主 則無窘步於旁礪曲逕之患矣 故書之目之 以自警焉”

42) 고순정(1995), 22면.

넷째 단락은 ‘神’과 ‘明’의 개념과 신명사의 功能을 설명하였다. 그 내용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神’이란 통하지 않는 바가 없음을 말하고, ‘明’이란 虛靈하고 어둡지 않다는 뜻이다. 방안 깊숙한 곳이나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데에서 혹시라도 가려지는 것이 있다면, 神과 明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가장 신령스러운 것은 鬼神인데 이 집은 귀신과 함께 신령스러우며, 지극히 밝은 것은 日月인데 이 집은 일월과 나란히 밝다. 桓魋가 뽑을 수 없으며, 秦火도 태울 수 없다.

方寸에 터를 잡았지만 천지의 넓고 아득함을 총괄하며, 은미한 곳에 거처하지만 만물의 변화를 관통한다. 거대한 강하와 산악, 작은 곤충과 초목, 위로는 바람·우뢰·서리·이슬, 그윽히 깊고 아득한 곳으로부터 일상의 사물이나 생활에 이르기까지 명료히 훑듯처럼 비추고 헤아려 알아 두루 꿰뚫고 막힘이 없다. 아! 신령스럽도다. 밝지 않다면 이와 같을 수 있으랴! 저 文王의 靈臺는 지을 적에 庶民의 수고로움이 있었고, 邵雍의 樓閣은 단지 공중에 지어졌을 뿐이다. 어찌 이 집이 天工으로 말미암아 혼연히 이루어졌으며, 인력을 소모시키지 않아 도끼로 다듬은 흔적이 없는 것과 같으랴.<sup>43)</sup>

신명사의 이름을 해석하여 ‘神’은 통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며, ‘明’은 虛靈하고 어둡지 않은 것이라고 규명하였다. 그리하여 神明한 이 집은 鬼神처럼 신령스러우며, 日月과 같이 밝다고 하였다. 신명사의 이름을 이와 같이 자세하게 분석하여 그 의미를 밝힌 경우는 태계의 「신명사기」가 유일하다고 생각된다.

神明의 개념을 규정한 후, 그 이름에 부합하는 功能에 대해 묘사하였다. 비록 좁은 方寸에 터를 잡았지만 천지의 광박함을 총괄할 수 있으며, 은미한 데에 거처하지만 만물의 변화를 관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크고 작은 만물, 높고 깊은 곳, 일상의 평범한 사물과 행동 등 모든 대상·장소·움직임 등을 환하게 알 수 있으며 두루 관통하여 막힘이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단락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군들 이 집이 있다는 것을 모르겠는가? 알지만 찾을 수 있는 사람

43) 河潛, 『台溪集』卷6, 「神明舍記」. “夫神者 無所不通之謂 明者 虛靈不昧之謂 屋漏之處 不覩之中 或有所蔽覆 則不可謂神 不可謂明 莫神者鬼神 而茲舍與之神 至明者日月 而茲舍與之明 桓魋不能拔 秦火不能焚 其基方寸 而摠括天地之廣博 其居惟微 而通貫萬物之變化 大而江河山岳 小而昆蟲草木 上而風霆霜露 幽而窈冥深邃 以至日用事物動靜云爲 瞭然若燭照而數知 融會透徹 無所窒礙 於戲 其神矣乎 非明 能若是乎 彼文王靈臺有庶民經始之勞 邵子樓閣 只是空中之構 夫豈若茲舍之一由天工 而渾然完成 不費人力 而無斧鑿之痕也哉”

이 드물며, 찾았지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어찌 집이 사람을 멀리한 것이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하였을 뿐이다.

아, 찾을 방도가 있도다. 氣卒을 몰아쳐 부리고 意馬를 제어하며 喚醒子를 부르고 四勿旗를 세우며 誠意關으로부터 들어간다면, 자기의 내면이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여 하늘은 옥빛 연못에 잠겨 있고 물총새는 뜰의 풀 사이를 날아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한 걸음에 마루로 뛰어 올라간다면 그 경계를 모두 볼 수 있으리라.

그런데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들다. 털끝만한 틈이나 짧은 순간일지라도 경계가 조금 풀려 게으름을 피운다면, 感情의 波瀾이 해를 입히고 貪慾의 盜賊이 틈타지 않을 자 거의 없을 것이다.

송나라 때 유학자 林用中이 지은 銘에 “주재가 있으면 비워지니 神이 그 성곽을 지키며, 주재가 없으면 가득차니 鬼가 그 집을 엿본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신명사를 지키는 家法이 아니겠는가! 신명사는 고정된 주인이 없으니, 들어온 것이 주인 노릇을 한다. 吾黨의 젊은이들이여, 어찌 각자 돌아가 찾지 않겠는가! 이미 남에게 고하였으니, 인하여 스스로 힘써야 하리라.<sup>44)</sup>

태계는 마지막 단락에서 신명사를 찾아가는 방도와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태계의 마음 수양을 살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우선 신명사를 찾기 위해서는 氣卒을 몰아쳐 부리고 意馬를 제어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喚醒子를 불러오고 四勿旗를 세운다. 그런 후에 드디어 誠意의 관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신명사의 본래 모습이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기 위해 氣를 바르게 조절하고 意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며, 혼몽한 정신을 깨우쳐 각성시키고 자신의 사욕을 애초에 단호히 차단하는 수양의 방법을 문학적 수식을 통해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신명사를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찾게 된 신명사를 보존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는 사실을 주지시켰다. 미세한 사이나 짧은 순간에 조금 경계가 풀어져 게으름을 피운다면, 감정의 물결이 범람하여 해를 끼치고 탐욕의 도적이 틈을 타고 들어올 것이라고 경계하였다. 미세한 차이에 도 수평을 잃는 저울이나 약한 바람에도 물결이 일어나는 연못의 수면처럼,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잠시라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마음 수양의 긴

44) 河潛, 『台溪集』 卷6, 「神明舍記」. “世之人 孰不知有是舍 知而能求之者鮮矣 求而能守之者尤鮮 此豈舍之遠人 人自遠爾 噫 求之有道 驅氣卒 制意馬 呼喚醒子 建四勿旗 自誠意關入 則自家裏面 本色依舊 天涵玉淵 翠交庭草 而一蹴升堂 闕闕可觀矣 然而求之不難 守之甚難 毫忽之間 食息之頃 警飭小懈 而惰慢繼之 則其不爲情瀾之方割慾寇之抵隙者 幾希矣 宋儒林用中銘曰 有主則虛 神守其郭 無主則實 鬼瞰其室 茲非守舍之家法乎 舍無常主 入者主之 吾黨小子 盍各歸而求之 既已告于人 亦因以自勸”

장감과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태계는 朱熹의 문인 林用中이 지은 「主一銘」을 인용하여 신명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음을 수양할 적에, 듣고 보고 알고 생각하는 것을 물리쳐 제거하는 방법을 지향하는 부류가 있으며, 생각함을 물리쳐 제거하려 하되 분란함을 경계하는 방법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다. 전자는 노장이며, 후자는 불교의 마음 수양법이다. 유학자들은 노장의 마음 수양법에 대해 총명함을 끊고 지혜를 버리는 것이며, 불교는 坐禪과 入定을 추구하여 天理를 끊고 人心을 해친다고 비판하였다. 그리하여 마음을 보존하는 방법에 있어 노장과 불교의 폐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제시한 방법이 바로 敬을 유지하여 마음에 主宰가 있게 하는 것이다.<sup>45)</sup>

임용중의 「主一銘」은 이와 같이 유학자가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 견지하는 수양법의 핵심을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태계가 이 작품의 내용을 ‘守舍之家法’이라고 칭송한 까닭은 신명사를 보존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도교·불교와 구별되는 유학적 마음 수양법의 핵심을 밝힌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또한 ‘신명사는 고정된 주인이 없으니, 들어오는 것이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표현은 敬의 여부에 따라 신명사가 神明의 집이 되기도 하고 雜鬼의 소굴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하여 持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하게 주시시켰다.

태계의 「신명사기」는 「신명사도명」에 담긴 남명의 敬義 사상과 마음 수양법을 계승하되, 스승인 부사가 남명학의 핵심을 ‘三字符’로 파악한 체계 속에서 그 맥을 잇고 있다. 그리고 天君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데, 태계는 신명사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天君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敬에 의한 주재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점은 태계의 「신명사기」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태계의 「신명사기」와 한사의 「신명사기」가 제목이 같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아 주목을 요한다. 연보에 따르자면, 한사의 「신명사기」는 1620년에 지어졌고 태계의 「신명사기」는 1633년에 완성되었다. 한사와 태계 둘 다 1634년에 『光海君日記』纂修廳 謄錄官으로 파견되어 함께 근무하였다. 그리고 10월에 奏請副使 金榮祖가 使行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자 영남출신의 관료 31명이 掌苑署에 모여 同道會를 결성하였는데,<sup>46)</sup> 이 때 26명이 경상좌도의 인물이며 강우 출신은 霜巖 權濬(1578-1642)

45) 朱熹·呂祖謙 편, 『近思錄』卷4, 「存養」. “學者先務 固在心志 然有謂欲屏去聞見知思 則是絕聖棄智 有欲屏去思慮 患其紛亂 則須坐禪入定 如明鑑在此 萬物畢照 是鑑之常 難爲使之不照 人心不能不交感萬物 難爲使之不思慮 [絕聖者 黜其聰明 棄知者 屏其知慮 老氏之絕聖棄智 釋氏之坐禪入定 皆絕天理害人心之教也] 若欲免此 惟是心有主 如何爲主 敬而已矣 有主則虛 虛謂邪不能入 無主則實 實謂物來奪之 [免此 謂有思慮而無紛亂 林用中主一銘云 有主則虛 神守其都 無主則實 鬼闕其室]

· 寒沙 姜大遂(1591-1658) · 松湖 沈自光(1592-1636) · 台溪 河潛(1597-1658) · 曹時逸 등 5명이었다.<sup>47)</sup> 등록관으로 함께 근무하고 동도회 모임에 같이 활동한 사실을 통해 1634년 이후로는 두 사람 간에 친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서로 교유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사실에서 태계의 「신명사기」가 한사의 「신명사기」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태계가 1633년 4월에 첫 발령으로 司宰監 直長에 제수되고, 한사가 靈光 군수를 지내다가 11월에 弘文館 副修撰으로 임명되어 조정으로 다시 돌아왔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경상우도 출신으로 함께 조정에 있으면서 서로 교유하며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 태계가 「신명사기」를 저술한 시기가 바로 이 해 겨울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 볼 때, 태계가 「신명사기」를 저술한 배경에 한사의 「신명사기」가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5. 俛宇 郭鍾錫의 「神明舍賦」

俛宇 郭鍾錫(1846-1919)은 조선 헌종 때 태어나 철종 때 학업의 기초를 다져서 고종 초기에 이미 학문을 크게 성취하였다. 그리고 고종 말기, 조선이 종말을 고하는 시점에 역사의 현장에서 그 과정을 직접 목도하고 선비로서의 바람직한 처신이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였으며, 그리하여 그에 마땅한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스스로 그것을 실천했던 인물이다. 그는 남명학파의 본산인 덕천서원과 30리 정도 떨어진 단성의 사월리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주변에 가득한 남명학파 학자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남명학파의 학문 성향이 몸에 배게 되었다.<sup>48)</sup> 따라서 면우는 사승 관계의 측면에서 퇴계 학풍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지연 및 혈연의 측면에서 실천을 중시하는 남명학의 기풍까지 자기화한 뒤,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갈고 다듬었던 인물이라 이를 만하다.<sup>49)</sup>

면우는 남명의 「신명사도명」에 대해 “마음을 보존하고 이치를 살피며, 자신을 성찰하고 사욕을 이겨내며, 道에 나아가고 德에 이르는 실체가 정연히 조리가 있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 만세토록 학자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sup>50)</sup>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자신도 「神明舍賦」

46) 강성두(2002), 10면.

47) 류진희(2004), 18면.

48) 이상필(2007b), 221면.

49) 상동, 235면.

50) 郭鍾錫, 『俛宇集』 卷149, 「南冥曹先生墓誌銘」. “其存心察理 省身克己 造道成德之實 莫不井然有條 確然有

를 지어 「신명사도명」에 담긴 남명학파의 心法을 계승하였다.

면우의 「신명사부」는 모두 97韻 194句 1,031字로 이루어져 있다. 격구로 압운이 되어 있으며 산문부의 형식을 띠고 있다.<sup>51)</sup> 전체의 내용을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앞에서 구암의 「신명사부」를 고찰할 때와 마찬가지로, 다소 긴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생략없이 전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첫째 단락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주 사이에 만물이 태어나니, 크거나 작거나 간에 집에서 편안함을 얻네. 지렁이는 흙에 구멍을 파고 굴뚝새는 숲에 둥지를 틀며, 호랑이는 가파른 벼랑에 살며 교룡은 깊은 물에 숨어 사네. 집이 귀한 까닭은 주인이 거기 살기 때문이네. 높다란 太廟 우러러 보니 훌륭한 선조 여기에 임하고, 엄숙하고 두려운 明堂에서 聖君의 정사가 나오네. 하물며 太一眞君은 上帝의 衷을 받아 내게 내렸음에랴! 八極을 돌아보며 일정한 방향 없지만, 어찌 정해진 거처를 버리겠는가? 태초의 경영을 근원해 보니 區宇에 陰陽五行을 뿌렸고, 赤縣을 살피 터전을 잡았으며, 사방 가운데 神州를 택하여 정했네. 丹田을 열어 부지런히 일하니 누가 막으랴! 하루도 안 되어 완성하였네. 인력으로 어찌 가능한 일이라? 그 臺를 靈臺라고 이름했네. 眞君이 공손히 다스리니 진실로 깊어지고 넓어졌네. 사방의 문이 활짝 열려 아득히 먼 지역도 모두 품었네.<sup>52)</sup>

첫째 단락은 神明舍와 太一眞君의 유래에 대해 묘사하였다. 우주 안에 깃들여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각자 저마다의 집을 가지고 있다. 지렁이와 같은 미물로부터 호랑이와 같은 맹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들이 자신의 집을 짓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얻는다. 면우는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에게 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말로 시작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참된 의미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주인에게 있음을 밝혔다. 수단에 미혹되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처럼, 집에 정신이 팔려 그 곳의 주인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神明舍’를 제목으로 삼았지만, 핵심은 그 곳에 임재하고 있는 ‘太一眞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태일진군은 上帝의 衷을 받아 사람에게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書經』 「湯誥」에 “上帝께서 下民들에게 衷을 내려주어 순히 하여 항상된 性을 소유하게 되었다.”<sup>53)</sup>라고 하

據 而可以爲萬世學者之指南”

51) 이상필(2009), 133면.

52) 郭鍾錫, 『俛宇集』 卷1, 「神明舍賦」. “宇宙之間 萬物之生 罔偉罔細 攸宅以寧 蚯蚓穴諸壤 鷦鷯巢乎林 虎豹广于巖 蛟龍隄于深 所貴乎宅 有主其臨 仰太廟之崑崙 儼先祖之蒞茲 於肅穆其明堂 乃聖后之出治 而況太一眞君 承皇衷而降予 覽八極而無方 然曷遺於常居 原厥初之經營 播二五於區宇 按赤縣而相基 適神州於四圉 開丹田而鞏役 成不日而孰禦 豈人力之可及 謂其臺曰靈臺 眞君拱御 允遂而恢 四門洞闢 靡遠不懷”

53) 『書經』 「湯誥」. “惟皇上帝 降衷于下民 若有恒性”

었는데, 九峯 蔡沈(1167-1230)은 “하늘이 명을 내릴 적에 仁·義·禮·智·信의 이치를 갖추어 편벽되거나 치우친 바가 없으니 이른바 衷이며, 사람이 명을 받을 적에 仁·義·禮·智·信의 이치를 얻어 마음과 함께 생겨나니 이른바 性이다.”<sup>54)</sup>라고 해석하였다. 이것에 근거한다면, 면우는 태일진군을 본원적인 측면에서는 太極이며 품부받은 측면에서는 性이라고 이해하여 신명사의 주인인 태일진군은 곧 理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그가 寒洲 李震相(1818-1886)의 主理說을 계승하여 ‘心卽理說’을 주창한 것과 연관된 부분으로, 「신명사부」의 首尾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단락은 다섯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첫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義仲을 嶠夷에 거하게 하였네. 百揆를 수령으로 삼아 돕게 하여, 한 집안을 화락하게 하였네. 靑陽을 펼쳐 만물을 발육하니, 사계절을 모두 다스리네. 父子有親은 너의 직분이며, 親民과 澤物은 미루어 나갈 일이라. 太和를 부채질하여 하나로 단결하니, 석 달을 풀어놓아도 여기지 않네.<sup>55)</sup>

첫째 부분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 義仲은 五性 가운데 仁의 특성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仁은 五行에서는 木에 해당하며, 방향은 동쪽을 의미하며, 계절은 봄에 속한다. 또한 仁은 五性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義·禮·智·信의 으뜸이 되며 마음의 덕을 전부 포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天理는 항상 살아 움직이면서 모든 만물을 낳고 낳으며 쉬지 않는데, 이것은 곧 愛之理인 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괄해서 말한다면 仁은 마음의 전체적인 덕을 가리키며, 구별해서 본다면 五性 중에 하나인 것이다.<sup>56)</sup> 이러한 성리학적 개념으로서의 仁을 이해한다면, 이 부분에서 희중의 직분과 임무 등에 관해 묘사한 것이 추상적 개념의 仁을 의인화시켜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대비하여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부분과 마찬가지로, 둘째 단락의 둘째 부분은 禮를, 셋째 부분은 義를, 넷째 부분은 知를 의인화하여 묘사하였다.

義叔을 南交에 거하게 했네. 하늘은 높고 땅은 깊으며, 품계와 등급이 조화롭네. 찬란한 문장은 밝게 빛나고 흐리지 않네. 이에 만물이 성대해지고, 인문이 화려하게 문채 나네. 長

54) 『書傳』 「湯誥」. “天之降命 而具仁義禮智信之理 無所偏倚 所謂衷也 人之稟命 而得仁義禮智信之理 與心俱生 所謂性也”

55) 郭鍾錫, 『俛宇集』 卷1, 「神明舍賦」. “於是分命義仲宅嶠夷 長百揆而贊襄 俾一家之熙熙 宣靑陽而發育 莫不理夫四時 父子有親惟爾職 親民澤物惟爾推 扇太和以一團 縱三月而莫違”

56) 陳淳 지음/김영민 옮김, 『北溪字義』, 예문서원, 1993, 113-116쪽.

幼有序는 너의 직분이며, 길례·흉례·빈례·군례·가례 등을 조화롭게 행해야 하리. 공경하고 공경하여,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네.<sup>57)</sup>

禮는 오행에서 火의 神이며, 방향은 남쪽이며, 계절은 여름에 속한다. 敬之理로, 天理를 적절하게 品節하고 文飾하는 것이다. 마음 속에 공경함이 있으면 저절로 禮가 생겨나며, 응하고 접할 때 자연스레 품절과 문식이 적절히 어우러지게 된다.<sup>58)</sup>

和仲을 서쪽에 거하게 했네. 만물을 거두어 모으니, 神功의 성취 흡족하네. 文武百官 조회하는 자리에 간사한 무리 엿본다면, 네가 사정없이 베어버려 씨도 남기지 않고 죽여야 하리. 경계 밖에 도적이 침입하면, 네가 깨끗이 제거하여 남김없이 소탕해야 하리. 君臣有義는 너의 직분이며, 尊尊賢賢은 네가 행할 일이다. 이익을 도모하지 말고, 사사로운 정을 용납하지 말라. 조처함이 지극하다면, 온 천하가 맑아지리라.<sup>59)</sup>

義는 오행에서 金의 神이며, 방향은 서쪽이며, 계절은 가을에 속한다. 宜之理로, 마음이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주자는 “義가 마음에 있을 때에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래서 사물이 다가와 접촉하면 두 동강이 난다.”라고 하였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없다면, 이것은 마음이 완악하고 우둔하여 義가 없는 것이다.<sup>60)</sup>

和叔을 朔方에 거하게 하였네. 만물이 이로부터 시작되며, 만물이 여기에 갈무리되네. 離婁의 환한 눈과 師曠의 밝은 귀로도, 멋대로 우쭐대지 못하리. 張良과 陳平의 모략, 管仲과 諸葛亮의 계책도, 자신하여 으스스대지 못하리. 가는 터럭이 태산을 가릴 수 있고, 거울은 어떤 사물도 남기지 않네. 夫婦有別은 너의 직분이며, 是是非非를 자세히 살펴야 하리. 시작하게도 하고 끝나게도 하니, 감히 소홀히 할 수 있으랴?<sup>61)</sup>

智는 오행에서 水의 神이며, 방향은 북쪽이며, 계절은 겨울이다. 知之理로, 옳은 것을 옳

57) 郭鍾錫, 『俛宇集』 卷1, 「神明舍賦」. “申命義叔宅南交 天高地下 品級和調 炳然有章 伊嘯匪消 萬物於斯爲盛 人文郁乎生華 長幼有序惟爾職 吉凶賓軍嘉惟爾和 敬之敬之 罔俾有蹉”

58) 陳淳 지음/김영민 옮김, 『北溪字義』, 예문서원, 1993, 117쪽.

59) 郭鍾錫, 『俛宇集』 卷1, 「神明舍賦」. “分命和仲宅西 歛萬物而摯束 恰神功之茲諧 朝著之間 奸邪閃弄 爾乃剿殄 滅之無遺種 疆場之外 寇賊闖發 爾乃廓然 掃除無餘枿 君臣有義惟爾職 尊尊賢賢惟爾行 勿謀利 勿容情 措制之至 四海其清”

60) 陳淳 지음/김영민 옮김, 『北溪字義』, 예문서원, 1993, 116-117쪽.

61) 郭鍾錫, 『俛宇集』 卷1, 「神明舍賦」. “申命和叔宅朔方 萬物於斯而始 萬物於斯而藏 離婁之明師曠之聰 不足以自私揚揚 良平之謀管葛之策 不足以自恃堂堂 秋毫足以蔽泰山 寶鏡不曾留一物 夫婦有別惟爾職 是是非非惟爾知悉 令始令終 或敢有忽”

게 여기고 그른 것을 그르게 여길 줄을 알아 확고하게 정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智란 확실하게 아는 것을 말한다. 智가 水에 속하는 까닭은 물은 맑고 투명해서 사물을 비출 수 있으며, 모든 만물이 의지하여 힘입는 조화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물이 만물의 시작을 이루고 끝을 이루는 듯이, 智는 만사의 끝을 이루고 시작을 이루는 것이다.<sup>62)</sup>

그리하여 方寸이 사방으로 통하여 막힘이 없네. 엄숙하고 정돈된 계단과 뜰에서, 나아가고 물러나네. 안으로는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밖으로는 만물이 길러지네. 방 안에 거처하는 것을 보니, 은밀한 곳에서도 부끄러움 없네. 陰陽의 지도리가 돌아가고 乾坤의 문이 열리고 닫히네. 담장이 눈앞을 가로막는 부끄러움 없고, 거처에는 기둥과 주춧돌 같은 대신이 보좌하네. 강당은 확 트여 넓고, 행랑은 정연하게 서 있네. 흙손질한 벽 더럽히는 이 없고, 둘러친 보루 넘어오는 자 없네. 眞君은 공손히 좌정하여 있으니,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로다. 모든 곳이 편안하여 소란스럽지 않네. 환호하며 복치고 춤추니, 기쁨과 즐거움 가득하네.<sup>63)</sup>

둘째 단락의 마지막인 다섯째 부분은 태일진군의 四大臣인 義仲[仁]・義叔[禮]・和仲[義]・和叔[智]이 각자 맡은 직분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신명사의 안팎이 평화롭고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찬 모습을 묘사하였다. 방 안의 깊숙한 곳에 거처할 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일상의 은밀한 일로부터 陰陽의 지도리가 돌아가고 乾坤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우주의 거대한 운행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밖으로는 만물이 길러진다. 眞君이 잘 다스리기 위해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모든 곳이 편안하며,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에 환호하며 복치고 춤춘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와 질서는 미세한 곳에서 가만히 엄습해 오는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 차츰차츰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셋째 단락의 첫째 부분이다.

저것은 어떤 종자인가? 마음 속이 평안치 못하네. 처음엔 미세하게 일어나, 나를 놀라게 하지 않네. 졸졸 흐르는 물 막지 않으면, 장차 거대한 강물을 이루리. 피어오르는 작은 불꽃 끄지 않으면, 거센 불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담장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리라 생각지도 못했으며, 가까운 甘泉에서 변란을 만나리라 어찌 알았으리요? 도적이 변경에 이르

62) 陳淳 지음/김영민 옮김, 『北溪字義』, 예문서원, 1993, 119-120쪽.

63) 郭鍾錫, 『俛宇集』 卷1, 「神明舍賦」. “於是方寸之間 四通不礙 肅肅階庭 以進以退 入而天地位 出而萬物有相在爾室 不愧于屋 幹旋陰陽之樞 開闔乾坤之戶 面無土牆之恥 居有柱石之輔 有敞其堂 有秩其廡 無畫我塹 無越我塢 眞君垂拱 天錫之祐 百堵晏然 不吳不騷 歡呼鼓舞 樂焉陶陶”

러, 포효하며 들어오네. 왁자지껄 소란스러운 무리, 우리 경계에 가득찼네.<sup>64)</sup>

사악한 무리들은 줄줄 흐르는 물과 피어오르는 불꽃처럼 너무나도 미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에는 거대한 강물과 거센 불길처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더욱이 담장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고 가까운 곳에서 변란이 발생하였으므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습격을 받은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온 경계가 사악한 무리로 가득차게 된다.

다음으로 셋째 단락의 둘째·셋째·넷째 부분에서는 사악한 무리가 경계를 침략하는 경로와 과정을 熊耳山[耳]·天目峰[目]·瓦口關[口]·石鼻城[鼻] 등 네 가지로 묘사하였다. 이것은 남명의 「신명사명」에서 “아홉 구멍의 사악함도 세 군데 要處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九竅之邪 三要始發].”라고 하여, 귀·눈·입 등 세 군데에서부터 사악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 말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면우는 三要에 코를 더 첨가하여 네 가지로 설명하였을 뿐이다.

熊耳山에서 온 자들이 있네. 종과 북을 시끄럽게 두드리고, 胡笳와 角을 소란스레 불어대네. 작은 새와 벌레들 처량하게 울어대며, 기괴한 귀신들 울부짖는 듯하네. 형세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 같고, 위력은 우레처럼 빠르네. 산이 붕괴하고 골짜기가 무너지는 소리에, 짐이 흔들리고 문이 덜컥거리네.

天目峰에서 온 자들이 있네. 햇빛에 물결치듯 깃발을 펄럭이고, 불꽃이 일어나듯 창을 들썩이네. 사타돌궤의 검은 까마귀, 臺城의 흰 말, 樊崇의 赤眉軍, 張角의 黃巾賊, 靑犢軍과 碧眼胡의 무리들이, 陽城과 下蔡의 군대를 몰아오네. 북방 변경의 연지를 훌쩍리고, 비단으로 철갑을 묶었네. 어찌 平陽의 초가집이, 瓊宮과 瑤臺처럼 사치스럽게 되었나?

瓦口關에서 온 자들이 있네. 요리기구 끓여진 자들 선봉되어 수천 수백씩 진치고, 溜水와 澗水 분변하는 자들 中營을 다스려 알맞게 조절하네. 酒池의 해자를 두르고, 脯林의 목책을 세웠네. 곰들을 몰아 발바닥을 어루만지며, 범들을 부려 하얀 태를 쓰다듬네. 낙타의 등, 성성의 입술, 소금의 짠맛, 꿀의 단맛, 씹바귀의 쓴맛, 여뀌의 매운맛, 모두 함께 넣어 섞었네.

石鼻城에서 온 자들이 있네. 蘭草와 蕙茝를 태워 연기를 피우고, 사향을 쪼개어 미물을 현혹시키네. 비린내가 온 땅에 가득하고, 오물이 앓은 곳까지 밀려오네. 팔이 긴 자들 다리 짧은 이들, 무려 억만의 무리를 거의 이루었네. 문짝을 두드리고 울타리를 걷어내며, 뜰을 짓밟고 마루를 침탈하네. 창벽은 더럽혀지고, 기둥은 쓰러지려 하네.<sup>65)</sup>

64) 上同. “夫何一種 內懷不平 其動始微 而莫我驚 涓涓不除 將爲江河 熒熒不滅 炎炎若何 不意蕭牆之內 有此 顛輿之憂 詎知甘泉之邇 乃見烽火之愁 有寇至邊 其來洶然 叮儻嘯黨 彌滿我區”

귀·눈·입·코 등과 연관된 사악한 욕심의 발로를 네 부분에 걸쳐 각기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그런 후 마지막 부분에서는 네 군대의 要處로부터 침탈하여 들어온 무리가 거의 역만을 이루었고 온갖 횡포와 유린으로 인해 신명사의 창벽이 더럽혀지고 기둥이 쓰러지려 하여 위기의 극점에 치닫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冬至에 陽이 처음으로 생겨나듯이, 태일진군은 위기의 최고 절정에서 통렬한 반성을 통해 다시 회복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眞君이 탄식하길, 아! 어찌 이리 심하게 되었는가? 나의 집이 무너지려고 하니, 혹시 그치게 하여 조금 늦출 수 있을까? 和叔에게 명하여 계책을 결정하게 하고, 密地에서 전쟁의 계획을 정하였네. 和仲에게 명하여 적군을 廝殺토록 하여, 돌연히 섬멸하여 모조리 죽였다네. 드디어 義仲이 조종의 터전을 수복하고, 義叔이 中興宮을 정리하였네. 모든 지체를 주관하여 명을 내리고, 항상 엄숙하고 의젓하여 삼가는 듯하니, 누가 이것을 주장하는가? 眞君의 공로라네. 만약 眞君이 없다면,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천만년 긴 세월 동안, 군주 바뀌지 않았고 집은 날로 풍성했으니, 그 군주 누구인가? 無極翁이시라네.<sup>65)</sup>

태일진군이 大悟覺醒하여 마음을 새롭게 한 다음, 먼저 和叔[智]에게 계책을 결정하게 하고 密地에서 전쟁의 계획을 정하였다. 그런 뒤에 和仲[義]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적군을 廝殺하여 모조리 죽였다. 드디어 義仲[仁]이 조종의 터전을 수복하고, 義叔[禮]이 중흥궁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면우는 네 단락에 걸쳐 신명사가 겪은 治亂의 대서사를 역동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태일진군을 칭송하는 말로 끝맺음으로써, 첫 부분에서 밝힌 태일진군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태일진군이 군주로서 천만년 긴 세월 동안 신명사를 다스렸고 그렇기에 신명사는 날로 풍성할 수 있었는데, 이는 바로 ‘無極이

65) 上同. “有從熊耳山來者 金鼓之鏗鏘 笳角之嬰娜 織而禽(口+官)蟲唧之淒瑟 怪而神呼鬼哭之恍惚 勢如風雨之驟 威若雷霆之疾 卽有山崩峽倒之響 屋我弘而門我闔 有從天目峰來者 旗旌嬋妍而曜日 戈戟蓬勃而如火 或沙陀之黑鷄 或臺城之白馬 或樊崇之赤眉 或張角之黃巾 或青犢碧眼之屬 驅陽城下蔡之軍 潑塞土之臙脂 束金甲以綺羅 是何平陽之茅屋 有此瓊宮瑤臺之奢 有從瓦口關來者 負鼎俎者爲前鏹而千百其屯 辨淄澠者攝中營而不多不寡 以酒池爲濠 以脯林爲柵 驅群熊而撫其掌 駕衆豹而懷其白 與夫駝之有背 猩之有唇 鹽之鹹 蜜之甜 荼之苦 蓼之辛 莫不容與而繽紛 有從石鼻城來者 蕪蘭茝而漲其烟 紉麝腦而訖么麼 腥氎以之而滿地 朽穢以之而逼坐 其若長臂者短脰者 無慮幾億萬群 敲我扉 撤我藩 蹂躪我庭 搶攘我堂 牕壁則欲其塗抹 棟桷則欲其顛僵”

66) 上同. “眞君曰 咨噫何此甚 我屋將頽 其或少遲于戢禁 命和叔而決策 定廟算於密地 命和仲而廝殺 歟斷掃其靡遺類 於是義仲修復祖宗之址 義叔整理中興之宮 攬百體而制其命 恆凜凜乎若桐 誰其尸者 眞君之功 苟無眞君 我屋奚庸 於千萬年 君不替而屋日豐 其君伊誰 曰維無極翁”

면서 太極'인 理의 현현인 것이다.

면우의 「신명사부」는 마음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생동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계승하고 남명학파의 心法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가적 용어에 기원하고 있는 태일진군이라는 명칭과 의미를 太極으로 규정한 것, 「신명사도명」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敬과 義 중에서 冢宰로서의 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대신에 주재자로서의 太一眞君과 仁·義·禮·智의 사대신을 부각시켜 강조한 점 등은 면우의 「신명사부」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면우의 「신명사부」가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계승하지 않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면우는 「신명사도명」의 핵심을 “太一眞君으로써 心이 太極이 된다는 뜻을 환히 드러내었다.”<sup>67)</sup>라고 파악하였으므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신명사부」를 지어 남명의 心學을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III. 맺음말

지리산권의 동쪽인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남명학파의 마음 공부를 이해하기 위해,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계승한 남명학파 학자들의 문학 작품 5편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작품들이 함유하고 있는 계승적 측면과 변별적 특징을 요약 정리한 후, 그것이 남명학파의 학문과 사상이 계승되고 발전해 나가는 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의 좌표로 점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구암 이정의 「신명사부」는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계승하여 마음의 주재성을 강조하고 경과 의의 수양법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치열하고 부단한 노력을 쏟아 성현이 이룩한 마음 수양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명사의 개념을 성리학적 이론 속에서 정립하였으며, 마음 수양의 최고점을 유가 성현의 도통론에서 파악하여 중용을 강조하였다. 남명의 「신명사도명」이 마음 수양의 구체적 방법과 전개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구암의 「신명사부」는 마음 수양의 당위성과 목표를 성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려 한 것이라고 구분해 볼 수 있다.

동강 김우옹의 「천군전」은 「신명사도」·「신명사명」에 함축되어 있는 남명의 心學과 修心法을 傳이라는 형식을 통해 서사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림으로 그려진 「신명사도」의 평

67) 郭鍾錫, 『俛宇集』 卷149, 「南冥曹先生墓誌銘」. “其爲神明舍圖銘 以太一眞君揭心爲太極之旨”

面的 停止를 서사의 방법을 통해 力動的 展開로 서술하였으며, 銘으로 표현된 「신명사명」의 함축성을 傳의 형식을 통해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아울러 「천군전」은 남명이 견지한 敬과 義의 상호연관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반면, 특히 敬의 ‘廐殺的 存養省察’에 더욱 밀착하여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음 수양의 단호하고 준엄한 면모를 역동적으로 드러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사 강대수의 「신명사기」는 ‘記’라는 형식을 통해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계승하였는데, 신명사의 명칭·유래·구조·주변 경관·공능·닭고 지키는 방법 등을 비유적 수사를 통해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논리적 구성이 치밀하여 마음 수양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법론을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신명사도명」과의 차이점은 ‘太一眞君’에 관한 언급이 없는 대신에 ‘神明畬’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며, ‘四字符’가 변용되어 ‘三字符’로 표현되었다. 이처럼 신명사의 의미를 해명하고 마음 수양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므로, 「신명사도명」과 「천군전」에 보이는 마음 수양의 치열함과 긴장감이 줄어든 느낌이 든다. 어떤 구체적 대상과 관련해 사실을 기술하고 의미를 밝히는 ‘記’의 문학적 형식을 고려해 본다면, 한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에 중심을 두어 서술하려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태계의 「신명사기」는 「신명사도명」에 담긴 남명의 敬義 사상과 마음 수양법을 계승하되, 스승인 부사가 남명학의 핵심을 ‘三字符’로 파악한 체계 속에서 그 맥을 잇고 있다. 그리고 天君에 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데, 태계는 신명사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天君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敬에 의한 주제를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점은 태계의 「신명사기」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판단된다.

면우의 「신명사부」는 마음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생동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계승하고 남명학파의 心法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가적 용어에 기원하고 있는 태일진군이라는 명칭과 의미를 太極으로 규정한 것, 「신명사도명」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敬과 義 중에서 冢宰로서의 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대신에 주재자로서의 太一眞君과 仁·義·禮·智의 사대신을 부각시켜 강조한 점 등은 면우의 「신명사부」가 가지는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5편의 작품이 가지는 계승적 측면과 특징적 면모를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남명의 「신명도사명」이 함유하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각기 다른 입지와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명사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해석의 각도가 다르므로, 부각시키려 한 중심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 개인이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고 격렬하게 수양해야 하는가를 묘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기도 하고, 신명사의 의미를 밝히고 마음 수양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신명사와 태일진군의 개념을 성리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기도 하였다.

둘째, 5작품을 시기별로 구분해 본다면, 구암 이정·동강 김우옹과 같이 남명에게 직접 배운 이들의 작품, 한사 강대수·태계 하진과 같이 남명의 문인에게 배운 재전 문인의 작품, 면우 곽종석처럼 남명의 유품이 남아 있는 경상우도에 거주한 사숙인의 작품 등이다. 이와 같이 남명학파의 계보상에서 저자들을 구분해 볼 때, 그들의 작품이 가지는 의의를 남명학파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시켜 가늠해 보게 된다. 구암과 동강의 작품은 남명학의 계승과 전파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한사와 태계의 작품은 인조 반정 직후 남명학파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봉착하여 학맥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면우의 작품은 외세의 침략과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운 시기에 유학적 마음 수양의 指南으로서 남명의 심학을 천양한 것이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남명학파의 학자들이 남명의 「신명사도명」을 문학적 측면에서 계승한 양상을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앞으로 后山 許愈의 「神明舍圖銘或問」, 深齋 曹兢燮의 「神明舍圖五字辨」·「跋神明舍圖銘解」, 復庵 曹垣淳의 「神明舍圖銘解」·「論神明舍圖」·「辨神明舍圖」 등과 같이 학술적으로 계승한 저술들과 谿谷 張維의 「神明舍記」, 鄭弘溟의 「神明舍記」, 性齋 許傳의 「神明舍銘」 등 경상우도 지역 이외의 학자들이 저술한 신명사 관련 저술들도 폭넓게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작품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인해 당연히 수반될 수 밖에 없는 해석의 편협과 독단을 교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1. 원전자료

姜大遂, 『寒沙集』.

郭鍾錫, 『俛宇集』.

金字頤, 『東岡集』.

成汝信, 『浮查集』.

李 楨, 『龜巖集』.

曹植 엮음/남명학연구소 역주, 『사람의 길 배움의 길 - 學記類編』, 한길사, 2002.

曹植 지음/남명학연구소 옮김, 국역 『南冥集』, 한길사, 2001.

朱熹, 『朱子語類』.

朱熹 · 呂祖謙 편, 『近思錄』.

陳淳 지음/김영민 옮김, 『北溪字義』, 예문서원, 1993.

河沆, 『覺齋集』.

河潛, 『台溪集』.

胡廣, 『性理大全』.

### 2. 연구논저

강성두(2002), 「寒沙 姜大遂 研究」,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신표(2002), 「『신명사도·명』의 새로운 이해」, 『남명학연구』 제14집, 남명학연구소.

고순정(1995), 「浮查 成汝信 研究」,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충렬(2002), 「『神明舍圖·銘』의 새로운 고석」, 『남명학연구논총』 제11집, 남명학연구원.

류진희(2004), 「台溪 河潛 研究」,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필(2005), 『남명학과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이상필(2007a), 「龜巖 李楨의 學問 標的 - 「神明舍賦」의 분석을 중심으로 -」, 『남명학연구』 제23집, 남명학연구소.

- 이상필(2007b), 「면우 곽종석」, 『문화고을 진주』 창간호, 진주문화연구소.
- 이상필(2009), 「俛宇 郭鍾錫의 南冥學 繼承樣相」, 『俛宇 郭鍾錫의 學問과 思想(Ⅱ)』 발표논문집, 남명학연구소.
- 이세동(2009), 「龜巖 李楨의 中庸學」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44호,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 전병윤(1991), 「南冥曹植의 「神明舍圖」 考察」, 『남명학연구』 창간호, 남명학연구소.
- 정현섭(2004), 「『天君傳』의 意味構造와 思想的 演繹」,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일규(2004), 「남명의 神明舍圖・銘과 언어 구조」, 『논문집』 제18집, 평택대학교.
- 최석기(1994), 「南冥의 「神明舍圖」・「神明舍銘」에 대하여」, 『남명학연구』 제4집, 남명학연구소.
- 하만홍(2002), 「覺齋 河沆의 學問과 詩世界」,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Mt. Jirisan Zone Intellectuals' Study of the Mind

- Reinterpretation and Contemporary Meaning Appeared in Nammyeong School Literary Works including 「Shinmyeongsadomyeong」

Jeon Byeong Cheol

<HK Research Professor at the Kyungnam Cultural Research Institute>

Nammyeong Jo Sik (1501-1572)'s 「Shinmyeongsadomyeong」 shows one's worrying and overcoming process in building up his moral character and reaching the saintly state and clearly reveals 'Strict Discipline'. You can find five literary works of Nammyeong School Scholars succeeding to Nammyeong's 「Shinmyeongsadomyeong」, and you can have an opportunity to learn 'Study of the Mind of Nammyeong School' formed around Jinju, one of Mt. Jirisan areas.

The works are Guam Lee Jeong's 「Shinmyeongsabu」, Donggang Kim Woo Ong's 「Cheongunjeon」, Hansa Gang Dae Soo's 「Shinmyeongsagi」, Taegye Ha Jin's 「Shinmyeongsagi」 and Myeonwoo Gwak Jong Seok's 「Shinmyeongsabu」. You can induce two main conclusions after consideration of reinterpretation and contemporary meaning that these five works have.

Firstly, they succeed to Nammyeong's 「Shinmyeongsadomyeong」 and illuminate their meaning and importance from each one's position and perspective. The five works have different analytical methods of identifying key factors of 「Shinmyeongsadomyeong」 according to each one's perspective and contemporary needs. Accordingly, central ideas that you try to highlight shall be different.

Secondly, when you see some of the authors from the genealogy of Nammyeong School, you will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their works in association with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Nammyeong School. You will discover the meaning of the pieces of Guam and Donggang in terms of 'Inheritance and Propagation of Nammyeong School'. You can identify the pieces of Hansa and Taegye in terms of 'Protection of School Ties' at a crisis of Nammyeong School immediately after Injo

rebellion against Gwanghaegun. Myeonwoo works show ‘How to spread the Study of the Mind of Nammyeong’ as a Confucian Mind Discipline at a moment of foreign invasion or at a national crisis.

Key words: Nammyeong Jo Sik, 「Shinmyeongsadomyeong」, Guam Lee Jeong, 「Shinmyeongsabu」, Donggang Kim Woo Ong, 「Cheongunjeon」, Hansa Gang Dae Soo, 「Shinmyeongsagi」, Taegye Ha Jin, Myeonwoo Gwak Jong Seok.

